

엘니뇨와 문제 병해충

여름 잦은비 예상되 도열병·벼멸구 걱정

관련정보 수집·분석 및 방제·영농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홍보부

남미의 페루연안에서 적도에 이르는 태평양상의 수온이 2~6년 주기로 올라가 세계 각지에 홍수, 가뭄, 폭설 등을 몰고 다닌다는 기상이변의 주범인 엘니뇨 현상은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그렇다면 지난한해동안 논란이 계속됐은 엘니뇨 현상이 과연 올해에는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는 모든 이의 궁금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상이변을 예측하는데는 고도의 과학적 자료와 분석능력이 뒷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그 동안 각종 자료를 꾸준히 분석하여 엘니뇨 발생에 따른 병해충 발생양상을 예견해 보고 이에 대비한 영농대책을 마련,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부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엘니뇨 끝나는 해 흉년 많아

1980년대 이후의 엘니뇨 발생 시 우리 나라는 시작 년도 보다 는 끝나는 연도의 기상이 좋지 않아 대체로 흉작이 많았다. 즉 엘니뇨가 시작된 '82년, '86년, '92년, '94년에는 대체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비가 적었으며 7~8월에 일조량이 많아 평년작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엘니뇨가 끝나는 '83년, '87년, '93년, '95년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낮은 반면 비오는 날이 많아 일조량이 부족해 흉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기온이 높고 비가 적었으며 특히 후기가뭄이 심했고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올해의 기상 및 병 해충 발생 전망은 봄가뭄으로 벼물바구미 발생이 우려되며 여름에는 저온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도열병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마 후에는 고온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의 발생도 예상할 수 있다.

저온 잦은비로 도열병·멸구 우려

한편 농림부는 '90~'97년까지 8년간 도열병 발생과 6~9월의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저

온, 다우, 일조부족이 도열병 발생면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도 저온, 잦은 비 및 일조시간 부족으로 도열병이 확산되고 벼 쓰러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벼멸구는 고온이 계속되면 세대기간 단축으로 발생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기온이 낮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기압골에 따른 여름철 비가 자주 올 때는 기압골을 타고 오는 벼멸구의 비래량이 많은 경우 발생이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농협에 비축물량 확보하고 상습발생지에 책임자 지정

농림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와같은 병 해충 발생 전망에 따라 철저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농협은 수도용 농약의 확대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벼물바구미 및 벼멸구의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제나 분제를 충분히 비축토록 할 계획이다.

병 해충은 발생하기 직전이나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므로 병 해충발생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병 해충 발생면적 조사기간을 병 해충이 급격히 확산되어 문제가 될

때는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일선의 행정 지도기관, 농협과 마을대표로 "비상방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벼물바구미, 도열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마을별 방제 책임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병 해충 공동방제 예산은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및 벼멸구, 기타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병 해충 방제에만 사용토록 하고 지방비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할 때 긴급히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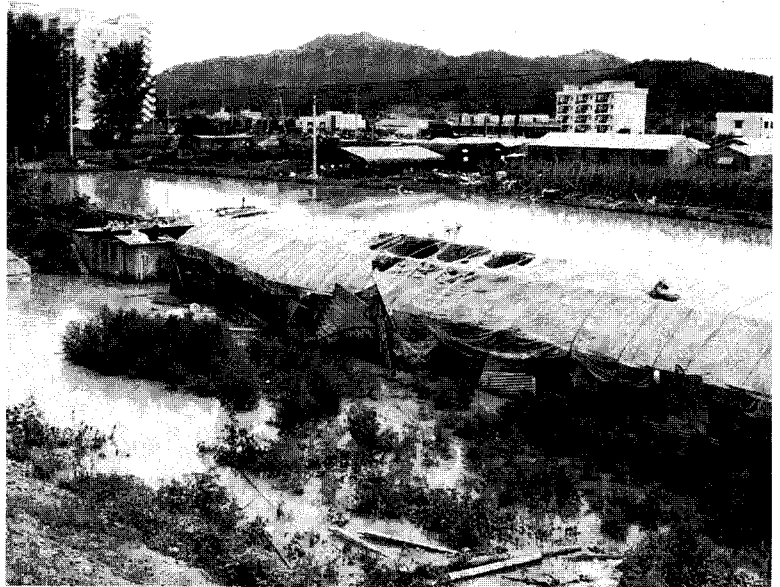
가뭄대책비 5백억 조기 지원 논물 기둥기 용수개발 추진

농림부는 이와같은 병 해충 방제대책과 함께 엘니뇨 발생에 따른 영농대책을 봄가뭄과 여름철 냉해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올해의 봄가뭄 대책으로는 우선 지난해 가뭄대책비중 사용하고 남은 1백37억원을 암반관정 4백80공을 뚫고 양수장 1개를 건설하는데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키로 했으며 올해의 가뭄대책 예산 5백억원도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영농에 필요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중규모 등 7개 농업용수 관련사업 예산을 준공 및 부분 준공지역을 확대하여 집중 지원하고 수리시설 및 관정, 양수장비에 대한 일체 점검정비를 조기에 추진한다. 또한 해빙과 함께 산간지 등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11만 4천ha에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간이 용수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가뭄지역에는 건답직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이상 높아 98년 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구촌에 사상 최대의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냉성 품종 적극 권장하고 사질답 객토자금 우선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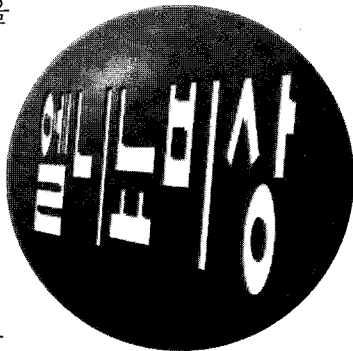
한편 여름철 냉해 대책으로는 강원, 경남북 및 내륙의 산간지에 냉해에 강한 품종을 재배하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물 빠짐이 심한 사질답은 벼가 연약하게 자라냉해가 심하므로 사질답이 많은 지

역에 객토자금을 우선 배정하여

영농철 이전에 점토, 황토 등으로 객토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올해의 기상 및 병해충 발생 전망은 봄가뭄으로 벼물바구미 발생이 우려되며 여름에는 저온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도열병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벼가 냉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어린 이삭이 땅 표면으로부터 15~20cm이내의 높이에 위치할 때이므로 이때 논물을 20cm 이상 깊게 댈

수 있도록 영농철 이전에 실시하는 논두렁 정비때 논두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농업인 모두 적극 대처해야

이와같은 엘니뇨 대책은 그동안의 자료분석을 통한 대책으로 농업인도 새롭게 다가오는 엘니뇨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은 물론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제 및 영농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바라는 3년 연속 대풍년은 기필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약정보